

호남 가야유산 최초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청,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지배자 무덤군으로 추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직)은 전북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북쪽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남원 운봉고원 지역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의 지배자 무덤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40여기의 대형 무덤들이 무리지어 있다. 이 무덤들 중에는 직경 20m가 넘는 초대형 무덤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에 사적 지정 예고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 98,225㎡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된다.

이 고분군은 지난 1989년 5기의 고분을 대상으로 처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 정밀지표조사, 2013년 32호분 발굴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그간의 조사를 통해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는 물론 일부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이 확인되었으며, 210여점의 철기류와 110여점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2013년 32호분을 대상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길이 7.3m 내외의 대형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에서는 가야성곽묘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에서는 가야성곽묘 등의 최고급 위세품이 출토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출토유물 뿐 아니라, 무덤의 축조에 있어서도 관곽기법을 통한 봉토의 조성, 주구(흙채취 및 배수를 위해 무덤 주변에 두른 구덩이)의 조성, 석곽 축조 시 목주(木柱)의 이용 등 삼국시대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

이렇듯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5~6세기 경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와 백제, 그 주변세력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1973년 전북도 기념물 제 10호로 지정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꾸준한 학술조사는 물론 학술대회를 통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실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적 지정 예고는 호남권 가야문화유산 중 최초의 사례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향후 영남권에 비해 저조했던 호남권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있어 큰 반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 사적 지정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우리지역의 철 문화 다시 살펴보자

국립전주박물관, '철의 문화사' 특별전 연계 강연회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전북의 철 문화를 재조명하는 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는 '쇠·철·강철의 문화사' 특별전과 연계해 마련된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철이 움직인 세계사와 한국사를 살펴 우리 역사 속 철의 역할과 가치 변화에 주목한다.

순회전시는 '철과 인류·권력·삶'이라는 흐름 안에서 전북 철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한반도 남부지역 최초로 철문화가 유입된 마한의 중심지이자, 발전된 가야 철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연계강연회는 특별전 '쇠·철·강철의 문화사'에서

살펴낸 세계사 속 우리의 철문화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한국의 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전북의 철문화가 갖는 역사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27일 오후 2시에는 '한국의 철문화'를 주제로 김상민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이어 2월 10일 오후 2시엔 최원규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전북의 철문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는 전시 담당자의 기획 의도와 전시 뒷이야기 등 살필 수 있는 큐레이터와 관람객이 만나는 대화의 장이자, 이 지역 철기문화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기획프로그램 이달 상영작 김보람 감독 '개의 역사'

떠돌이 늙은 개 주변사람들은 알까?

← 개의 역사' 스틸 컷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Jeonju IFF Showcase'와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를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먼저 'Jeonju IFF Showcase'는 최근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을 통해 상영됐던 한국영화들 가운데 미개봉 신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상영 후에는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등을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1월 상영작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에서 상영됐던 김보람 감독의 다큐멘터리 '개의 역사'다. '개의 역사'는 서울의 한적한 도심 배경으로 어느 떠돌이 늙은 개 한 마리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개 한 마리의 추적 과정을 통해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들의 시간과 역사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다. 오는 31일(수) 오후 7시40분에 만날 수 있으며 상영 후엔 영화를 연출한

김보람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Jeonju IFF Showcase'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마지막 회차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봉 상영되는 작품들 가운데 매월 한 작품을 선정해 선보이며, 영화 상영 후엔 촬영·편집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영화해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는 전문가와의 토크를 통해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은 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1월 선정작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에 상영되는 우디 앨런의 신작 '원더 휠'이다. 상영 후엔 '무뢰한' '원라인' '줄타동시'를 촬영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강국현 촬영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본 작품의 촬영 감독을 맡은 이탈리아의 거장 비토리오 스토라로의 촬영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iff.or.kr>)를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호소문〉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 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들에게 하도록 지시하고 개종에서 본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피아는 강제개종사업은 결국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지만 정치 개종목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강제개종교육의 근검과 이를 사수하는 개종목사의 처벌을 청와대 탄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20대 여성이 2017년 12월 29일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 감금된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 고, 입이 묶여 막혀 감시사했다.

고인은 지난 2016년에도 개종사업을 하는 목사의 기획 하에 납치, 감금당한 채 44일이나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에 고인은 죽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다.

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당소 폐쇄와 강제 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인이 남긴 국민신문고의 글에 귀 기울이고 이 호소에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자녀가 종교에 빠졌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에금을 받고 납치, 감금, 견박을 가족들에게 지시해 장기간 비양교육을 하는 전형적인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2007년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찾아와 40대 여성을 말치로 때려 사망한 한 사건 이후 두 번째 '종교 살인'이다. 울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역시 개종목사와 소속 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분노를 유발해 해 납치, 감금, 폭행을 사수하는 개종 목사들의 돈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기성교회의 한 목사는 2015년 모 언론사 기고 칼럼을 통해 '살인을 할 건 남편이 이해된다'는 주장을 펴 개종사업을 바라보는 목사들의 그곳엔 연석에 정악을 금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 견박, 폭행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강제개종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개종사업기인 김 모 목사는 개종사업이 돈이 된다며 목사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20대 여성이 납치된 직후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종교문제' '가족문제'란 이유로 방치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 여성은 죽음에 이르렀고 경찰은 실종자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사법당국이 피 끌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정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개종사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신실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누가 저들에게 국민을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종교인의 말을 쓰고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살인까지 사수하는 그들의 실태를 적시하고 대책을 세우라.

이번 20대 여성의 실사시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말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된 이 사건의 진파 주범을 발본색원 하라. 다시는 이 땅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입이 묶여 막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목사들을 엄하게 처벌 하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2018년 1월 21일

'섬진강 화가' 송만규 화백, 한국목자연구회 회장 선출

섬진강 화가로 알려진 전주 출신의 송만규 화백(사진)이 최근 대전 NGO 센터에서 열린 한국목자연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임기 2년)으로 선출됐다.



한국목자연구회는 목자의 반전평화 평등사상을 연구하여 올바른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2010년 1월 설립됐다. 단체는 기세찬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00여명(전주 2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그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민족통일, 그리고 공존번영을 도모하는 인생의 대동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각 지역별 연구회는 목자의 철학과 반전평화운동가로서의

활동을 널리 전파, 사라져가는 인문학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하나인 목자는 공자와 더불어 보수 진보의 쌍벽이었다. 동이족 출신의 목자였던 그는 '노동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설파했다. 노동자의 성자로 또 인류 최초의 반전 평화 운동가이자 과학자·철학자로 활약했다.

송만규 신임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목자사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다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목자연구회와 함께 해 왔다.

그는 "민주주의 그리고 우주·시간·생명에 주목한 목자의 사상이 인문학의 기본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사명애 연구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면서 "전쟁이나 평화나 민족 사회의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목자의 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통한 사회현실에 참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